생사윤회 속에서 그냥 벗어나라

☞ 21면에서 계속

해서 좋게 이 세상에 다시 나와서 산다 하더라도 그게 해가 가고 시간이 지나면 또 나쁜 일도 하게 되니까, 또 짓게 되니까 아예 '생사윤회 속에서 그냥 벗어나라' 이런 뜻에서 부처님도 말씀하셨고 또 지금 나도 길잡이로서 이렇게 길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한 철 요렇게, 한 생을 요렇게 살아가는 시간이 길지 않다고 하더라도, 여러 해를 다니면서 공부했다거나 짧은 시간에 내가 공부했다거나 이런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 해를 공부해도 '정(定)'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뭐, 10년 20년이 가도 소용없고, 소용없는 건 아니지마는 더디다 이거죠. 그런데 몇 달 안 됐어도, 몇 해가 안 됐어도 정으로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더디고 빠르고가 없다는 얘깁니다. 오래 배웠고 늦게 배웠고 이것이 없다 이 소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마음 안에, 마음이라는 것이 이름이지 '이름 없는 마음' 여기에는 자동적인 컴퓨터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름해서 방편으로 부르는 겁니다. 항상 얘기해 드리지만, 자동적인 컴퓨터가 있어서, 거기에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서 연방 그냥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좋은 일을 하려고 생각을 해도 어처구니없이 나쁜 일로 돌아가게끔 자꾸 만듭니다, 그렇게 업보에 입력이 돼 있어서. 지금 현실에서 아무리 착하게 행을 잘하려고, 말도 잘하려고 하지만 앞서 입력됐던 거 때문에 자꾸 그렇게 빗나갑니다.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빗나가든 빗나가지 않든 '무조건 거기다가 맡겨 놓는다' 이겁니다. 무조건 맡겨 놓는다. 믿지 못하면 맡겨 놓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믿고 거기다 맡겨 놓는다면, 쉴 사이 없이 입력이 돼서 자동적으로 나오는 데다가 자동적으로 입력을 한다면, 앞서의 그 어마어마하게 입력됐던 팔자 운명이 그냥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렵다, 망했다 이런 것도 남의 탓 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걸 빨리 수습을 하는 길은 '내 탓이야.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인연에 따라서 모두 얽히고 얽혀서 입력이 돼서 이 세상에 지금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 너 알아서 해라. 너만이 그 얽힌 거를 풀 수 있고 너만이 해결할 수 있다.' 하고 거기다 맡기는 그 작업을 하는 데 있습니다. 그 작업이란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면서 지켜보는 관법(觀法), 즉 관해 봐라, 지켜봐라 이거죠. 지켜보면서 마음으로 다스려 가면서 체험하는 것이 아주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지금. 그렇게 한다면 빨리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다 그렇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냥 급하게 닥치면 아예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곤 방방 뛰어요, 그냥. 나온 자리에다 다시 놔야 할 텐데, 내보낸 자리에다 도로 놓고, 내보낸 놈더러 해결을 하라고 그래야 빨리 수습이 되는데, 엉뚱하게 딴 데다가 그냥 전부 깔아 놓고는 온통 팔팔 뛰니까 이건 더더딜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참 돌다가 생각이 나면 그때서야 놓으니 이미 차 지나간 자리 아닙니까? 하하하….

그래서 "컴컴하면 불을 켜면 되고" 이 소리가 나옵니다. 왜 컴컴하게 삽니까? 컴컴하면 불을 켜서 밝게 살고, 배가 고프면 먹고, 소화시켜서 똥 누고 싶으면 시원하게 똥 누고, 편안하게 잠자고 싶으면 잠자라 이겁니다. 이것이 그냥 그대로 이렇게…, 이것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 이치가 복잡다단하다 할지라도 한 시간의 꿈입니다. 한 시간의 꿈! 한 시간의 꿈을 훌떡 벗어나면 세세생생에 끝간 데 없이 그냥 그대로 불바퀴 속에서도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벗어나면 뭐가 되느냐고 또 따지겠죠? 따지기 좋아하는 분들은 따집니다. 그러나 벗어나면 벗어나는 거지 뭐가 그렇게 탓이 많고 이유가 많습니까.

> **아무리 이 세상 이치가 복잡다단하다 할지라도**
> **한 시간의 꿈입니다, 한 시 간의 꿈!**
> **한 시간의 꿈을 훌떡 벗어나면 세세생생에 끝 간 데 없이**
> **그냥 그대로 불바퀴 속에서도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배우들이라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소임을 맡아서 주어진 역들을 합니다. 그렇게 소임 소임, 자기 잘하는 대로 소임을 맡아서 이 세상에 나오는데, 작은 거든지 큰 거든지 다, 남한테서 받아 가지고 나올 생각을 하지 말고 감독이 되라 이거죠. 즉 말하자면 옥황상제도 벗어나야 됩니다. 하하하…, 부처라는 것도 벗어나야 부처입니다.

미운 상대는 안되길 바라는 마음이…

질문 마음공부 하는 불자로서 부끄러운 말이지만 내가 정말 미워하는 상대에게는 좀 안 되길 바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다 내가 만든 인연이라고, 둘이 아니라고 머리로는 생각하지만 이 가슴으로는 한마음이 되질 않아 속상합니다. 제가 정신 차릴 수 있게 한마디 좀 따끔하게 해 주세요.

답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누가 하도 못살게 하고 회사를 망하게 해 놓고 돈도 한 푼 안 주고 그래서 아예 그냥 거리로 나앉게 됐답니다. 그래서 '아주 너도 거리로 나앉아 봐라. 거리로 나앉아 봐라.' 그러고 한바탕 원망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날, 사글세를 사는데, 아 글쎄, 그 사글세도 내놓으라고 그러더랍니다. 그래 가지고는 야, 이거 나쁜 사람은 오히려 살고 나는 이렇게 되니까 이것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고 나한테 그러길래, 내가 그랬습니다.

"야! 이심전심이야. 당신의 마음이 그러니까 당신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야. 당신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니 남을 원망하지 마. 말하자면 사인을 받지 않고 줬기 때문에 그렇게 됐으니 그건 당신이 잘못한 거지,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지 않으냐. 똑똑히 하라는 거지, 부처님 법이 그렇게 잘못하라는 게 아니지 않냐?" 이랬죠. 그러고선 "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잘돼서 참, 그 뜻을 알아서 날 좀 도와주게 하는 것도 주인공밖에 없겠지.' 하고 거길 믿어라." 그랬는데, 그해 일 년이 지나갔습니다.

일 년이 지난 후 하루는 그 사람이 찾아와서, "이제는 조금 나아졌으니, 전세 든 내 집을 당신 명의로 해서 들라." 그러더랍니다. 그게 사천만 원에 전세를 들었는데, 아, 그거라도 받았으니 얼맙니까? 그 뒤에 또 쌀도 들여보내 주고 이러니 돈은 없어졌다 하더라도 더욱더 친절해지고 더욱더 서로를 위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회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걸 되찾고도, 거기 같이 일을 하게 됐더라는 얘기죠.

그러니 우리가 남을 원망하기보다도 나부터 돌아다볼 줄 알아야 되죠. 지금 그 말도 그 뜻이에요. 그저 남을 원망할 생각은 조금도 마세요. 나는 나를 버리고…, 갔다든가 온다든가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나하고? 세상에는 그거보다도 더한 것도 다 버리고 가고, 내 몸도 이젠 벗어야 할 그런 처지에 구태여 무슨 뭐, 누가 어쩌니…. 아니, 씻고 닦고 하던 것도 다 버리고 떠나는데 그까짓 거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러니 이렇게 해서 안 되느니, 저렇게 해서 안 되느니…, 자식들한테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진짜 사랑하려걸랑 그저 '네 주인공과 내 주인공이 둘이 아니니까' 하고 스위치를 탁 올리면 거기에도 불이 들어오거든요. 한 방이니까, 한 식구들은 한 방이거든요. 한 방의 스위치가 다 한 방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는 어떻고, 요놈 조놈 하고 그럭하면 오히려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저 위로도 아래로도 전부 한마음이 돼서, 보이지 않는 데서나 보이는 데서나, 위로 조상들이 나를 돕고 아래로 자식들이 따라서 또 도와 간다면 뿌리가 깊이 박혀서 그 자식들이 어디 가도 잘 살죠. 자기 2세거든. 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밖으로 모습을 바꾼 거지. 그런 것뿐이니까, 자기가 잘 살도록 자기가 해야죠. 원망하지 마시고요.

병이 재발하니 마음이 힘들어요

질문 제가 몸에 병이 있었는데 열심히 관했더니 한 2년 동안 괜찮아서 안심했는데 다시 재발을 하니 마음이 힘듭니다. 제가 관하는 힘이 부족한 탓일까요?

답변 집을 지을 때 기초를 하죠? 그럴 때에 자갈하고 모래하고 양회를 쳐 넣고는 그냥 들이 다지죠? 첫 번부터 기초가 잘돼야 어느 집이든지 쉽게 헐어지지 않습니다. 너그럽고 지혜 있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병 붙을 자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또 그 안의 모든 것이 한마음으로 돼서 둘이 아닌 도리를 이 속에서 모두 알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의 사람이 그 도리를 완전히 모를 때, 집을 지을 때 기초하듯 다지고 또 다집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다시 병이 일어나면 어떠한 마음을 가질까 하고 테스트를 하는 도리를 모르십니까? 병이 아니라고 하고 체험을 하는 그런 도리가 있는가 하면요, '병에 걸릴 수가 없다. 병은 재료고 나를 가르치기 위해 바로 테스트하는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졌을 때에 '이건 이리 찔러 보고 저리 찔러 봐도 뭐 그냥 하나도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데….' 하고 물러서는 겁니다.

이 채찍질이라는 것은, 나를 내가 발견했을 땐 내 스승을 내가 얻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내 스승을 내가 만나는 것입니다. 나를 이끌어 가는 스승을 발견해서 스승한테 채찍을 맞는 겁니다. 맞으면서 공부하는 겁니다, 지금. 그럴 때는 그런 경고도 나올 뿐만 아니라 못된 짓을 하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하하…. 그냥 누(累)가 되게, 저기 나가서 그저 아무 말이나 막 하라고 그렇게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무조건 믿기만 하고 그냥 함부로 해 버리는지, 그렇지 않으면 믿는 반면에 '당신에 누가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없잖아.' 하고 다시금 돌려놓는지, 이걸 보기 위해서, 지혜로움을 가르치기 위해서, 나툼을 가르치기 위해서 모든 거를 다시금 재출발을 합니다. 재다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집 기초하는 것과 같다 이겁니다. 기초를 어쭙잖게 해 놓으면 벽에 금이 가고 전부 이게 잘못돼 가지고 나중에는 기와인 것도 그냥 잘못돼 가지고 씰그러지고 일그러지니까 전체 비가 새고 그럽니다. 그와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내가 병이 안 나는 게 아닙니다. 몸을 가졌는데 어찌 아프지 않으리까?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아프다 하면은 콧방귀 뀝니다. 하하하…. '네가 모든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하면서 네 몸이 아플 땐 어떻게 하겠는가?' 할 때, '허, 참! 맘대로 해라. 네 몸 네가 끌고 다니는데 누가 뭐라겠니? 네 몸을 네가 끌고 다니는 거니까 심부름을 시킬 만하면 그냥 끌고 가고, 이제 이런 거는 심부름도 못 하겠구나 할 때는 옷을 벗기든지 맘대로 해라. 입히는 것도 벗기는 것도 너 알아서 해야지.' 그러고는 또 한 번 생각합니다. '내가 가겠다고, 옷을 벗겠다고 생각했을 때에 벗겨야지, 너 그렇잖으면 혼나!' 하하하….

혼낸다는 거는 이렇게 상대를 두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없으니까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없으니까 나를 없애고 그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두고서 나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 경계가 되고, 상대가 되고 이러니까 안 되죠, 그건.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이 원자라면 원자에서 입자가, 분자가 많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라서 완성이 된다면 그것이 또 원자가 되구요. 마음이 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부피가 늘어나도 늘어남이 없고, 또 많이 넣어도 두드러짐이 없다. 그러면서도 그냥 자유자재하게 내가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여건을 쥐고 있다는 결론이죠. 여러분이 마음이 밝으면 태양계도 여러분이지 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용광로에다 그거를 그냥 넣으면 그것이 그냥 재생돼 버려요. 그러면 이 세상에 다시 출현이 될 때에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는 거죠. 즉 말하자면 아까도 과거고 조금 아까도 과거니까 말입니다. 이 자리에서 떠나도 지금 있었던 자리가 과거 자리가 되죠. 그러니까 과거 자리, 현재 자리가 따로 없이 그냥 자재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넉넉한 마음을 가지세요.

